■ 11대 핵심과제 - 25대 주요과제, 어떻게 진행되나

종단-사회 '소통창구' 급부상

종단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불교의 화쟁사상으로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사회 소통기구가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다. 화쟁위원회는 33대 집행부의 방향과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구다. 행정이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집행부와 총무원장 스님의 철학이 담긴 조직이라는 것이 종단 안팎의 평가다. 화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와 종단은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문화에서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새로운 현상을 접하고 있다.

지난 6월8일 출범한 화쟁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봉은사 문제를 현안으로 놓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화쟁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수석 등 정부 관계자를 불러 사업 전반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곧바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 사회 단체 대표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7월23일과 8월2일엔 공사가 벌어지는 낙동강과 영산강을 각각 방문해 그 지역의 지자체 및 지방 환경청 관계자와 환경운동 단체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최근 국·팀장 워크숍을 열어 11대 핵심과제와 25대 주요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전체 종무원 조회를 열어 올 하반기 종단 운영방침을 설명하고 종무원들의 정진과 분발을 주문했다. 이에 본지는 핵심주요과제의 상반기 성과에 근거한 하반기 계획을 미리 살펴 종도들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마련했다.

◆ 핵심과제 ③ 조계종 화쟁위원회 구성 활동

봉은사·4대강문제 '중재자' 기대 모아
전문성 확보·위상 정립방안 검토해야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논란으로 등장했지만 일방의 목소리만 존재, 편견 없이 이를 듣고 중재하는 단체는 없었다. 화쟁위가 처음 중재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화쟁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름을 각인시켰다. 낙동강 상주보에서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 심 본부장으로 하여금 스님들에게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화쟁위가 부르면 청와대든 시민사회 단체든 마다않고 달려오며 설명할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덧붙인다. 종단의 스님들도 4대강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화쟁위가 해답을 도출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다.

이는 봉은사도 마찬가지다. 종단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봉은사 문제는 화쟁위 현안으로 부각된 뒤 조용해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화쟁위는 얼마 전 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해 직영사찰 운영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추석 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개월여 간 활동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인 전문성 부족과 화쟁위 개념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곧 전문가를 선임할 계획인데다 개념 통일과 화쟁위 위상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17일 개최했다.

화쟁위가 짧은 시간 안에 종단과 사회의 소통기구로 자리 잡은 원동력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다. 도법·법등·법안스님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망 받는 스님들에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박세일 한반도재단이사장 등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재가인사를 선임해 화쟁위의 무게를 더한 것도 이유다.

과제는 화쟁위 스스로가 위상을 더 강화하고 자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와 종단이 지켜보는 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는 것이 스님들의 지적이다. 화쟁위의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루는 안건은 사실 집행부 소관사항이다.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를 화쟁위로 넘겼다. 행정이 아닌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종단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만약 성공하면 앞으로 우리 종단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한다. 어깨가 무겁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주요과제

템플스테이 국제화

국제선센터 준공 임박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내실 기하며 만반 준비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 준공,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컨설팅,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등 규모와 내실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신정동에서 건립 중인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는 지난 2월 상량식을 거쳐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일반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이다. 간화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직접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불교문화체험시설과 교육시설, 건강치유시설을 갖췄다. 지상 7층 지하 3층의 규모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컨설팅도 진행했다. 템플스테이 운영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오는 2011년 3월까지 50개 사찰의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는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0곳을 선정해 준비태세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문화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통역안내자 140명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외국인 전담인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적 정보를 파악하고 모범 운영사찰의 사례를 공유했다.

장영섭 기자

토지처분금 효과적 활용

사찰 임의사용 전용 금지
사찰부동산관리법 '공감'
종단 목적사업 논의 방침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이 상반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사찰 부동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합리적 운용이 새로운 법의 목적이다. 국가의 공용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처분금을 투명하고 바람직하게 사용하자는 게 구체적인 이유다. 사찰부동산관리법에 따라 토지처분금은 총무원과 교구본사에 공동 예치된다. 이후 교구본사가 불사와 포교를 위해 이 돈을 사용하려 할 경우엔 총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처분금을 수령한 당해 사찰이 임의로 소비하는 '전용'을 금지한 점이 특징이다. 종단 재산의 유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총무원 집행부는 늘어나게 될 수입을 수행과 포교 등 목적사업 활성화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과 관련 직할교구 종회 및 본사 주지회의,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했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는 △사찰부동산관리법 및 시행령 관련 홍보 지속 △직할교구 부동산수익금 적립 통장 개설 △교구본사별 부동산수익금 예치 독려 및 적립확인 △종단목적사업기금 사용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장영섭 기자

"템플스테이 참여…사찰 많이 갈 것"

유인촌 장관 퇴임 인사차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이임 인사를 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템플스테이 참여 등 앞으로도 불교와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을 앞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이임 인사를 전했다.

유인촌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동안 불교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불교계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밀양 표충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경험을 소개한 뒤 "밖에 있어도 템플스테이에도 참여하고 그동안 못 가본 사찰들을 많이 찾아 가 보겠다"며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퇴임을 앞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이임 인사를 전했으며, 18일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8월18일 종무회의 결과)

호성스님	도일스님	일화스님	도경스님	현해스님	법장스님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서울 녹야원	화성 무우사	예천 원명사	미국 플로리다 보현사	삼척 감로사
동현스님	기영스님	도웅스님	각진스님	송묵스님	연제스님
평창 법장사	산청 문수암	김제 학선암	김제 흥복사	함평 보광사	고흥 수도암

현장에서

우리 곁에 다가온 '화쟁'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이해타산의 눈을 버리고, 대의명분의 눈으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눈을 버리고 언행일치의 눈으로." 지난 17일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이 제시한 화쟁의 자세다. 화쟁위원회가 주최한 워크숍은 생소한 화쟁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7세기 신라의 고승 원효스님이 주창한 화쟁은 한국사상사에 한 획을 그은 독창적 사유체계다. 그러나 난해한 논리, 무엇보다 서구 중심의 인문학 풍토로 인해 세간에서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한 지혜다. 워크숍에서 발제한 학자들은 각각 '원융무애의 실천적 원리', '갈등해결의 새로운 시각'이란 관점에서 화쟁을 조명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내가 옳으면 너도 옳다. 귀를 열고 말을 줄여라.' 상대에 대한 존중, 열린 대화와 타협의 태도가 화쟁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공존과 화해를 위한 공심(公心)과 하심(下心), 도법스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고 불법을 올바로 공부한 불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워크숍을 통해 화쟁의 의미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 가장 큰 결실이다. 화쟁위원회는 불교계 내외의 핵심 현안인 4대강 사업과 봉은사 갈등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뛰고 있다.

화쟁에 대한 개념 확립으로 화쟁위원들의 고민과 논의가 더욱 세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해주체들의 '발심'이 있어야 가장 명쾌하고 공정한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도 개발업자도 환경단체도 봉은사도 귀담아 들어야 할 화쟁이다.

승려 분한신고 추가 실시 공고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거 본종 모든 재적승려를 대상으로 금년 3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분한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스님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분한신고를 실시하오니 기간 내에 전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접수 : **2010년 9월 1일 ~ 9월 7일(7일간)**
2. 신고대상 : 금년 1차 분한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스님
3. 신고장소 : 재적교구본사
4. 신고서류
   1) 분한신고서 1부(말사/교구본사/총무원에 양식비치)
   2) 신상명세서 1부(소정 양식)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4) 제적등본 1부(단, 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전 호적(제적등본)을 추가 제출)
   5)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된) 각 1부
   6)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신분증 사진속복인 경우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7) 현 승려증
   8) 구비서류 부착외 별도 증명사진 3매
      - 구족계 수지자(3cm×4cm, 종단 가사원 제작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예비승의 경우(3cm×4cm, 종단 가사원 제작 만의/장삼 수한 사진)
   9) 분한신고 수수료 30,000원
   10) 자필 유언장(자필 및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자율 제출
5. 신고방법
   1) 신고인은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의 확인을 받고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합니다.
   2)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총무원 직할교구로 신고하며 직할교구 소속 승려 이외에는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합니다.
   3)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은 신고인의 신고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한 후 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토록 합니다.
   4) 재발급된 승려증은 신고한 재적교구본사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6. 주의사항
   1)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한신고시행규정 제17조에 의거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2) 승적 말소란 종단 재적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3) 신고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7. 문의처 :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또는 각 교구본사 종무소
   ☏ 02) 2011-1704~17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불기 2554(2010)년 8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